

한국 영역시 오류 원인 분석

—2000년 전후 국내외 출간 한영대역시집 중심으로—

박 향 선
(부산경상대)

1. 들어가는 말

2000년을 전후하여 미국, 영국을 위시한 영어권 국가에서 한국문학, 특히 한국시의 한영대역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한국의 대표적 현대시인들의 작품이 국내외 출판계의 노력으로 꾸준히 출판되었다. 이 작업은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영어권 국가의 대학 출판부와 한국시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려는 국내 출판사의 합동노력으로 이루어지거나, 또한 한영 대역시집에 대한 식자층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국내에서 시리즈물이나 단행본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최근 S 신문에서 최정화 교수(한국외대)가 국제 학술회의에서 한국의 통번역 수준은 이제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크고 작은 국제행사를 많이 치르면서 실용 분야의 영어 통역과 번역 수준은 크게 향상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몇 년 전 UNESCO 회의에서 한국은 문학작품의 해외 수출 면에서 중국 일본보다 양과 질적으로 많이 뒤쳐져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이후 문예진흥원을 비롯한 한국번역가협회, 각종 문화재단, 언론계가 나

서서 우수한 번역가를 등용하여 우리 시문학의 해외 출판에 힘써 온 것은 사실이지만 본격적인 한국시 영역작업은 그 역사가 얼마 안된 탓에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과거에 출판된 한국 영역시 가운데는 SL(source language: 원천언어)와 TL(target language: 목표언어) 사이의 구조적 문화적 상이점을 잘 극복하여 호평을 받았던 작품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2000년 전후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우리 시문학의 해외수출을 위해 등용한 번역가의 작품 중에는 ST의 의도를 잘 살리지 못해 독자들을 안타깝게 만들거나 수준급 독자 사이에서 영역시 비평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 작품도 적지 않았다. 어쨌든 우리 시문학의 해외수출이라는 명제 하에서 시작한 국가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한국시 영역물의 증가라는 가시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TT(target text: 번역문)이 ST의 의도(message)를 영어권 독자에게 잘 전달하고 있는지, TT가 자연스러움(readability)을 확보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ST의 의도와 달리 표현된 TT라도 영어권 독자에게 ST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도 있으며 그 작품이 현대 영시전통의 일부로 편입되어 두고두고 영어권 독자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다. 사보이(Savoy, 1980)는 전제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무엇이 좋은 번역인지 달라진다는 입장을 보였고 나이더(1976 in Brislin)도 “누구에게 최선인 번역인가?”를 전제조건으로 놓고 좋은 번역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유영남, 1991, p.12).

번역을 창작의 영역으로 본 번역가의 손길에 의해 동일한 ST(source text: 원문)에서도 많은 다양한 TT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영어권에서 한국학 과정이 영어권 학생들의 관심을 끌면서 한국어와 한국 현대시를 동시에 배우는 수단으로서 한영 대역판 시집 출판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영역할 때

- 1) TT에 ST의 의도가 충실하게 담겨져야 한다.
- 2) TT에 readability가 확보되어야 한다

는 두 가지 입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국 영역시집은 번역자 구성에 따라 동일한 오류가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인 2000년 전후하여 국내외에서 출간된 대

표적인 한국 현대시의 한영대역작품을 번역자 구성 면에서 1)한국인과 원어민 공역 사례, 2)원어민 단독 번역 사례, 3)한국인 단독 번역 사례로 구분하여, TT (번역문)에 ST(원문)의 의도의 왜곡 여부 및 TT의 readability(자연스러움)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한국 영역시 오류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시를 영역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의 원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추후 국내외에서 출간될 한영 대역시집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인용된 번역판은 국내외 출간된 작품 중 번역가 별로 한 권씩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본 논문 작성 시 국어자문으로는 부산대 국문과 임종찬 교수, 영어 자문으로는 부산 경상대 관광통상영어과 전임교수 Jennifer Hannon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힘)

2. 원작 의도의 왜곡과 Readability의 훼손 사례분석

2.1. 한국인과 원어민 공역 사례

번역가가 ST의 의도를 잘 전달하려면 원작자가 응시하는 중심 image를 함께 응시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다음 시에서 번역가는 이 점에서 실패한 것 같다. 이혜인 시선집 *On A Journey*(김진섭 & Eugene W. Zeilfelder 역; 2000)을 보면 TT에서 ST의 의도가 왜곡 번역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예1, 예2).

예 1) ST	꽃 지고 난 뒤 바람 속에 홀로 서서 씨를 키우고 씨를 날리는 꽃나무의 빈집 (『해질 무렵 어느 날』 p.38)
TT	After the flowers fall The wind blowing through the empty house Winnows the seeds, And blows them away. (‘At Sunset On A Certain Day,’ p. 40.)

SR **The tears**

Numerous people with aching bodies and hearts
Poured out before me,

Came in, groaning

And tossing about,

Throughout the night,

To become jewels, within.

예 2)의 ST에서는 하나의 진술을 두 연에 걸쳐 말하고 있다. ST는 ‘심신이 아픈 사람들이 쏟아놓고 간 눈물이 시인 몸 안으로 들어와 보석되느라고 괴로운 신음 소리를 내고 있다.’는 message를 속도감 있게 단번에 전하고 있다. 그러나 TT에는 ‘사람들이 눈물을 시인에게 쏟아냈다.’와 ‘눈물이 보석이 되어버렸다.’는 두 개의 진술로 나뉘어 있다. 아마 영역자는 한 stanza 내에서 진술을 완결시키는 영시의 전통적 구조에 사로잡혀 stanza 끝에 반드시 호흡을 끊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한국 시에서는 하나의 진술이 여러 연에 걸쳐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영시 형식대로 stanza 끝날 때마다 진술을 토막내면 poetic tension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눈물이 내 안에서 보석되느라고, 내 안에서 뒤척이고, 내 안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으므로 suggested revision에서처럼 진술 맨 끝에 ‘,within,’을 첨가하면 TT는 ST의 의도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윤동주 시선집 *Heaven, Wind, Stars, And Poems*(김진섭 & Eugene W. Zeilfelder 공역, 2000)에서도 ST의 의도가 TT에 왜곡 표현된 사례를 볼 수 있다(예3, 예4).

예 3) ST

.....
 떠들던 소나기
 그리고 번개를,
 춤추던 구름을 이끌고
 남방으로 도망하고,
 높다랗게 창공은 한 쪽으로
 가지 위에 퍼지고
 둥근 달과 기러기를 불러왔다.

..... (『창공』, p. 162)

TT

.....
**As the dancing clouds flee south,
leading the boisterous shower and thunder
of the tent-like sky,**
the azure sky beckons
the wild geese and the round moon
spreading loftily over the boughs
like a scroll.

..... (‘The Azure Sky,’ p. 163)

SR

.....
**As the boisterous shower
under the tent-like sky
flees south
leading thunders and dancing clouds,**
the azure sky beckons
wild geese and the full moon,
spreading loftily over the boughs
like a scroll.

예 3)의 ST는 ‘소나기가 멎으면서 번개와 구름이 함께 사라지는 한편으로 높은 창공이 펼쳐지면서 달과 기러기가 시야에 등장한다.’는 message를 전하고 있다.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나” 때문에 번역자는 “shower”와 “thunder”를 이끌고 가는 주체가 “the dancing clouds”라고 ST의 의도를 잘못 읽어낸 것 같다. 다음 시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예 4) ST

.....
누가 있어만 싶은 묘지에는 **아무도 없고,
정적만이** 군데군데 흰 물결에 **푹 젖었다.**

..... (『달밤』, p. 110)

TT

At the graveyard
somebody should be waiting
but nobody is there.
 Soaked in the moonlight,
the scattered graves seem tranquil.

(‘The Moonlight,’ p.111.)

SR

At the graveyard
 you’d expect to see somebody
nobody is there,
 but **only silence lies** soaking wet
 with the white-beaming waves around.

예 4)의 ST는 ‘(누가 있을 법한 묘지에는) 인적이 없고/ 정적만 여기 저기 달빛에 폭 젖어 있다.’는 두 가지 message를 전하고 있는데 반해 TT는 ‘(At the graveyard) somebody should be waiting,/but nobody is there./...the scattered graves seem tranquil.’는 세 가지 message를 전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어인 공역자나 감수자가 읽을 때 한국인 번역자가 영역한 TT가 readability(자연스러움)만 확보하고 있으면 이런 미묘한 poetic rhythm이 제대로 옮겨졌는지 여부는 간과되기 쉽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22. 한국인 단독 번역 사례

다음 사례는 시인이자 공인된 번역가가 자신의 시를 단독 영역한 경우이다. *The Morning*(trans. by Kim Chol, 1998)에서는 한국인이 단독으로 번역한 영역시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TT에 readability(자연스러움)가 훼손되어 있는 사례가 보인다(예5, 예6).

예 5) ST

섬세한 **자각**의 걸음종이를 지나
물찬 공기너머 외출의 길을 트는 종마여.
..... (「말의 宇宙」, p. 32.)

TT
Dear stallion,
Opening the way out over the crisp air
Through a delicate filter-paper of **self-awakening!**
.....
(‘The Universe of Words,’ p. 33.)

예 5)의 TT에서 “자각”은 “self-awakening” 대신 ‘self-consciousness’ 또는 ‘awakening’으로 옮겼으면 좋았을 것 같다. 사전 참조로 줄일 수 있는 오류로서 기억이 애매한 단어를 한글 식 조어논리에 의지하여 표현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다. 계속된 시구에서

ST
원칙을 떠난 子葉의 뜻밖의 발음 앞에
무릎을 꿇는다.
.....

TT
Kneel down before the unexpected pronunciation
Of the seed leaves that **left the principle.**
.....

위의 ST에서 “떠난”의 ‘떠나다’는 (어떤 사람이나 장소 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칙을 떠난”은 ‘원칙을 무시하는(벗어난)’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TT에서 “left the principle” 대신 ‘deviated from the principle’ 또는 ‘were against the principle’이라고 옮기면 TT의 readability가 덜 훼손될 것 같다. 이렇게 특정 동사와 특정 목적어(명사)가 긴밀하게 엮어서 사용되는 관용 어구 관련 오류는 한국인이 단독으로 영역하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로서 사전을 빈번하게 참조함으로써 다소 줄일 수 있지만 원어민 감수절차를 넣

으면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오류이다.

예 6) ST
 갑자기 재앙과 불행의 기운을 뺏어
 드디어 파멸시키고 마는 것
 (「햇빛」, p. 132.)

TT
 It is, O what
 Suddenly
Stretches a power of calamity and misfortune,

 ('The Sunshine,' p.133.)

예 6)의 ST에서 “파멸과 재앙의 기운을 뺏어”의 “뺏어(쳐)”는 ‘한 방향으로 길게 뺏다’는 의미로 쓰인 말이 아니고, ‘(힘이나 기운을) 휘두르다’는 의미이므로 “Stretches” 대신에 TL equivalent(등가어)인 ‘Exerts’를 사용하면 TT의 readability가 덜 훼손될 것 같다.

23. 원어만 단독 번역 사례

서정주의 *The Early Lyrics 1941-1960*(Brother Anthony of Taize역, 1998)에서 원어만 번역자가 난해한 ST의 의도를 파악할 때 어려움이 발생한 사례이다(예 7, 예 8, 예9).

예 7) ST **복사꽃 피고, 복사꽃 지고, 뱀이 눈 뜨고 초록제비 무치**
오는 하늬바람우에 혼령있는 하늘이여. 피가 잘 도라..아
 무病도없으면 가시내야, 슬픈일쯤 슬픈일쯤, 있어야겠다.
 (「봄」, p. 42.)

TT **Peach-flowers blossom, peach-flowers die, serpents wake,**
while over the west wind that brings emerald swallows,
 look, the sky, where ghosts dwell. The blood circulates
 well — if no sickness comes, my dear, then **I must expect**
some sorrow, some sorrow.

(‘Spring,’ p. 43.)

SR Look, the sky, where ghosts dwell, **over the west wind that brings peach blossoms to bloom and die, snakes to awaken, and spring swallows to come along!** If the blood circulates well...and no sickness comes, my lad, **we might expect a bit of sorrow, a bit of sorrow.**

예 7)의 ST는 한국인도 여러 번 읽어야 ST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난해한 시이다. ‘복사꽃 피(게 하)고 복사꽃 지(게 하)고, 뱀 눈 뜨(게 하)고 초록제비 묻혀오는 하늬바람(서풍) 위에 (그 바람을 일으키는) 봄의 신령한 하늘을 보라! 내 아가씨여, (우리 모두) 혈기 왕성하고 무병하니 (이런 봄철에는) 슬픈 일 좀 생겨도 괜찮겠다(감당할 수 있겠다).’는 message를 전하는 것 같다. 시인은 봄의 향연(복사꽃, 뱀, 제비)을 몰고 오는 “하늬바람(서풍)” 위에 머무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신령한 하늘에 경외심을 나타내며 봄의 축복에 환희를 느낀다. 그런데 TT는 “복사꽃이 피고, / 복사꽃이 지고, / 뱀이 눈 뜨고, / 또 (한편으론)초록제비 묻혀오는 하늬바람 위로,..(Peach-flowers blossom, peach-flowers die, serpents wake, while over the west wind that brings emerald swallows...)”로 직역하고 있다. ST는 신령한 봄 하늘이 일으키는 하늬바람과 봄의 개별 image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poetic tension을 일으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TT는 복사꽃 피고 지는 것과 뱀이 눈 뜨는 것을 하늬바람과 긴밀하게 연결시키지 못함으로써 전체의 poetic tension을 약화시켰다. 또 ST의 끝 부분에서 시인은 봄의 축복에 겨워한 나머지 “슬픈 일 좀 있어야겠다”고 말한다. 이는 TT의 ‘(건강하고 무병하니) 슬픈일이 (꼭)좀 생길거다(“I must expect some sorrow, some sorrow”).’는 의미보다는 ‘(건강하고 무병하니) 슬픈 일 좀 생겨야(되)겠다(생겨도 괜찮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시구에서 시인은 슬픔이나 없는 봄이 가져다주는 완벽한 환희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려는 것이지, 기쁨 뒤에 꼭 슬픈 일이 생긴다는 속담(好事多魔)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러므로 ST의 “슬픈일좀, 슬픈일좀 있어야겠다.”의 “..야겠다”는 말은 TT에서 사용한 ‘...야겠다’는 의미의 “must”(“I must expect some sorrow, some sorrow.”) 대신에 ‘..도 되겠다(괜찮겠다)’의 의미의 ‘might’로 바꾸면 ST의 의도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여기서 필자는 원어인 영역자의 ST의 의도 파악 능력 여부보다는 난해

한 ST를 원어민 단독으로 영역하는 일의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 8) ST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삼만리.
 흰옷깃 염여염여 가옵신 님의
 다시오진 못하는 巴蜀 삼만리.
 (『歸蜀途』, p. 92.)

TT **The path** my love took is specked with tears.
 Playing his flute, **he** began the long journey
 to western realms, where azalea rains fall.
 Dressed all in white so neat, so neat,
 my love's journey's too long, **he'll** never return.

 ('Nightingale: the journey home,' p. 93.)

SR **The path** my love tread with tearful eyes,
 playing the flute, **is a long, long way,**
 to the Western realms where azalea rains fall.
The journey he took dressed in white, neat and neat,
was so long that he can never return.

예 8)의 ST에서는 1-3행에 걸쳐 ‘님이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내리는 서역 삼만리이다.’라는 message가 단숨에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TT는 첫 행 끝에 호흡이 끊어져 ST보다 poetic tension이 감소되어 있다. ST는 message가 ‘님이 다시는 못 돌아 올 “길”에 초점을 모으고 있는데 반해, TT는 먼 “길”과 못 오실 “님”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ST의 의도가 잘 살려져 있지 못한 것 같다.

예 9) ST
 그대 소먹은 목청이라도
 두터운 갑옷 아래 흐르는 피의
 오래인 오래인 소리 한마디만 외여라.
 (『거북이에게』, p. 76.)

TT
 I beg you, though you may be hoarse,
speak one word with the old, age-old voice
 of the blood that flows under your thick shell.
 ('To a turtle', p. 77.)

SR O my dear, though your voice may be hoarse,
recite one note from your ancient songs, please,
 of the blood stirring under your heavy armour.

예 9)의 ST는 님이 잘 부르던 ‘오래인 오래인 소리 한마디만 외여라(옛 노래 가락 한 소절만 읊어 달라).’는 message를 담고 있는데, TT의 ‘speak one word...’를 ‘recite one note...’로 바꾸면 ST의 “(노래)소리 한 마디 외어라”의 의도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3. 맺는 말

이상과 같이 2000년 전후 발표된 한국 영역 시를 번역자 구성별로 3가지로 나누어 원문 의도 (message)의 왜곡과 자연스러움 (readability)의 훼손 면에서 살펴본 결과 오류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었다.

- 1) 한국인 영역자가 TT에서 ST의 의도를 왜곡시킨 경우에, TT가 readability만 확보하면 한국어 구사능력이 제한적인 원어민 공역자(또는 감수자)는 이 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 2) 한국인 영역자가 공인된 번역자라도, 원어민의 공역, 감수 교열 절차를 생략하면 TT의 readability가 훼손되기 쉽다. 왜냐하면 한국인 영역자는 특정동사 plus 특정 목적어로 구성되는 관용어구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3)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친숙한 원어민이라도 단독으로 영역할 경우, 난해한 ST를 만나게 되면 ST의 의도를 TT에 제대로 옮기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 영역시의 원작의도 왜곡과 readability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1) 영역자는 국어를 문인 수준으로, 영어는 원어민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한국시와 영시 연구를 깊이 해야 한다.
- 2) 한국시와 영미시에 정통한 영역자가 국어 자문(한국시 전공자)과 원어민 공역자(또는 감수자나 교열자)와 함께 번역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한국시 영역자에 대한 경제적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 3) 한국 시가 영어권 독자의 관심과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번역학회, 번역대학원, 번역가협회, 문화재단, 학술진흥원, 지역 언론사 등이 중심이 되어, 한국문학과 영미문학의 소양을 두루 갖추고 TL의 구사 능력이 우수한 시 영역번역가를 공정하게 발굴, 육성, 후원해야 할 것이다.
- 4) 번역원이 설립되어서 해외 출간 예정인 한국 영역시집을 지원 감독하여 사전에 오류를 지적하는 기능을 수행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영역시 비평이 활성화되어 한국 영역시의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번역자들에게 예비번역자들에게 올바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참고문헌

고창수 역편. 『한국의 명시』(*Korea's Golden Poems*). 서울: 한림문화사, 1999.
 백운복. 『현대시의 논리와 변명』. 서울: 국학자료원, 2001.
 수잔 베스넷-맥과이어. 『번역학개론』 (엄재호 역). 서울: 인간사랑, 1993.
 안희영. 한영번역능력에 관한 연구.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3-1, 75-101 서울: 한국문화사, 2000.
 유영란. 『번역이란 무엇인가?』 서울: 태학사, 1991.
 이영옥. 한국어와 영어간 언어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 — 인용문의 번

- 역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3-1, 59-82. 서울: 동인, 2002.
- Kim, Chol. written & trans. *The Morning* (아침). Busan: Bitnahm, 1998.
- Kim, Chun-su. *The Snow Falling on Chagall's Village*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trans. by Kim, Jong-gil. Seoul: Dapgae Books, 2000.
- Kim, Sang-hoon. Selected Poems and Sijo Poems of Kim, Sang-hoon(김상훈 시 시조 선집) trans. by Park, Hyang-seon & revised by Derek Biollo). Busan: Busan Daily Press, 1997.
- Kim, Tae-gwon ed. *Selected Pusan Poems and Essays: The Seagulls* (poetry and sijo poetry section, trans. by Park, Hyang-seon & revised by Derek Biollo). Busan: Busan Literary Men's Society, 1996.
- Ko, Chang-soo trans. & ed. *12 Contemporary Korean Poetesses*. Seoul: Literary Academy, 1996.
- Ko, Un. *The Sound of My Waves* (나의 파도소리) trans. by Brother Anthony Taize & Kim, Young-moo. Seoul: Dapgae Books, 1998.
- Shin, Kyoung-nim. *Farmer's Dance* (농무) trans. by Brother Anthony of Taize & Kim, Young-moo, 1999.
- Shuttleworthy, Mark.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1999.
- Song, Ki-jo. *As the Sky Breathes* (바다가 숨쉴 때) trans. by Sung, Ki-jo . Seoul: Parkwoosa, 1999.
- Yi, Hae-in. *At The Sea Again* (다시 바다에서) trans. by Kim, Jin-sub & Eugene W. Zeifelder. Seoul: Parkwoosa, 1998.
- Yun Dong-ju. *Heaven, Wind, Stars and Poems* (하늘, 바람, 별 그리고 시) trans. by Kim Jin-sup & Eugene W. Zeifelder. Seoul: Parkwoosa, 2000.

[Abstract]

The Causes of the Errors found in the Korean-into-English

Translation of Modern Korean Poems

-Centering around the K-E versions published
home and overseas around 2000-

Park, Hyang-seon
(Busan Gyeongsang College)

Recently, many of Korea's major modern poets' works have been translated into English. Sometimes the Korean-into-English versions were published in cooperation with a local publishing company and a U.S. or British university press, and used as textbooks for Korean Studies courses. When it comes to the English translation of Korean literary works, Korea lags behind China and Japan.

It is true that among the previously published K-E versions of Korean poems one can find superb models which had overcome the differences in linguistic structure and cultural features, between the source language (SL) and the target language (TL). However, though K-E translations have been published in large quantities since shortly prior to 2000, the quality of some is not high in that: 1) the design (message) of the source text (ST) is not properly transferred in the target text (TT); and 2) TT is not readable. Therefore, now is the time to evaluate those works, which are being used as textbooks for overseas students, at least in terms of: 1) the faithful transfer of the original design of ST in TT; and 2) the readability of TT.

For this purpose some K-E versions of major Korean modern poems were selected and analyzed to see if TT carries the same design as ST; if TT is

readable so that the causes of errors in the K-E translation of modern Korean poems can be identified.

The finding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 1) If a native Korean-speaking translator produces TT without the same design (message) as ST, the native English-speaking revisor or co-translator, with limited Korean competence, couldn't revise properly.
- 2) Even if a translator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translators in Korea, he/she might yield TT with readability marred, when he/she doesn't work with a native English-speaking revisor or co-translator, because Koreans are likely to make mistakes when it comes to using English idioms composed of a specific verb plus a specific object, etc.
- 3) A native English-speaking translator, familiar with Korean culture and poetry, is not likely to grasp the design of ST properly without the aid of a native Korean-speaking revisor or co-translator when he/she comes across complicated ST during the translation.

Therefore some suggestions could be made to reduce some errors in the K-E translation of Korean poetry:

- 1) The native Korean-speaking translator must enhance the level of his/her own English writing ability and comprehension of Korean and English poetry.
- 2) The economic treatment of translators must be improved so that the K-E translator could work together with a qualified English-speaking revisor (or co-translator), and if necessary, an expert in Korean poetry as a Korean advisor.
- 3) Qualified to-be-translators should be selected and supported so that Korean poetry could be comprehended and loved by English-speaking people. This job is expected to be done by the Korean Society of Translators, graduate schools for translators, the Association of

Translation Studies, the Korea's Academic Sponsoring Center, English presses, local broadcasting and press systems, private cultural organizations, etc.

- 4) The translations for overseas readers or students must be screened before they are published, by a national organization for translation screening, while systemized criticism for the K-E translations of Korean poetry should exist so that the level of translation in Korea could be enhanced by such activities.

